

예술계 고등교육기관 명칭 혼용에 대한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의 인식 분석: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을 중심으로

Prospective Applied Music Students' Perceptions of Naming Confusion in Ar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Junior Colleges and Vocational Colleges

최진희* · 한경훈**

Jinhee Choi^{ID} · Kyunghun Han^{ID}

초록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명칭 혼용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이해 수준을 분석하였다. 144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계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제도 인식이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두 기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66%가 명칭으로 인한 혼동을 경험하였다. 대학 선택 시 입시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예술대학’이라는 명칭 자체가 제도적 차이와 무관하게 대학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적 차이 정보 제공 후 65.3%가 진학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명칭 혼용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보 투명성 제고 및 전공대학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전문대학, 전공대학, 명칭 혼용, 실용음악과, 대학 선택, 제도 인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rospective applied music students' perceptions of naming confusion and institutional understanding between junior colleges and vocational colleges. An online survey with a pre-post design was conducted with 144 participants to examine how institutional awareness influences college decisions. Results showed that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did not accurately recognize the legal foundations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institutions, and 66% experienced confusion due to naming similarities. Students showed a clear preference for institutions with higher admission competition rates, and the term ‘arts college’ itself significantly influenced college choice regardless of institutional differences. Afte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institutional differences, 65.3%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ir college decisions could change,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accurate information provi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identifies the structural problem of naming confusion and proposes strategies for information transparency enhancement and differentiation of vocational colleges.

Key words: junior college, vocational college, naming confusion, applied music, college choice, institutional awareness

* First author, E-mail: lala8756@khu.ac.kr

Ph.D. Candidate,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Applied Arts, 1732, Deogy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Sou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an@khu.ac.kr

Full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Applied Arts, 1732, Deogy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South Korea

I. 서론

최근 예술계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예술대학교’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이 혼재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실용음악과 진학 준비생들이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2023). 이는 교육부의 정원 규제 아래 높은 입시 경쟁률을 지닌 4년제 실용음악 대학 및 전문대학에 비해 정원 규제가 없어 입학 장벽이 매우 낮은 전공대학을 안정권 대학으로 선택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며,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로, 학위 수여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보이지만 국가장학금, 행정 감사, 정원 규제, 정책 참여 등에서 제도적 차이가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대학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술계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전문대학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 중 예술 계열 학과를 운영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조작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는 법적 용어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연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임을 밝혀 둔다.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 선택 요인과 예술계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김은경(Kim, 2016)은 지방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선택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공 계열별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대학 인식과 선택 과정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밝혔다. 김계원 외(Kim et al., 2016)는 예체능계 대학의 인력 공급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여 예술계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과 해당 전공자 집단의 인식을 규명하였다. 윤수경 외(Yun et al., 2015)는 대학 및 전공 선택 과정에서 진로 성숙도, 학업 성취, 환경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학 선택의 일반적 요인이나 예술계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명칭 혼용이 진학 예정자에게 어떠한 인식 혼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국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 명칭이 학생의 인식과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명확히 논의되고 있다. 에블(A. Eble)과 후(F. Hu)는 대학 명칭이 학생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에서 신호(signaling)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Eble & Hu, 2022). 고티에(T. Gauthier)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기술교육(CTE)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 명칭과 제도적 구분이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과 진학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Gauthier, 2020).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명칭이 사회적

으로 낮게 인식되면서 학생들이 낙인감을 경험하고, 이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대학 명칭의 사회적 인식이 학생들의 자아개념, 진학 결정, 나아가 고등교육의 위계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명칭 혼용이 학생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명칭 혼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입시 정보 전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의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에 대한 제도적 인식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교육기관의 명칭은 진학 예정자의 인식 형성과 대학 선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진학 예정자의 제도 인식 수준은 대학 선택 및 진학 결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이 연구는 예술계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혼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진학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대학 선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와 실질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공대학과 전문대학의 법적 기반 및 개념 비교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주로 2~3년제 과정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일부 학과에서는 학사 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전문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행정 감사, 정원 규제, 정책 참여 등에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법적·제도적 틀 안에 포함된다.

반면 전공대학은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평생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 전공대학은 기존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 과정이 발전하여 제도화된 형태로, 현재 정화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총 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문대학과 달리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시 전형에서 전공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대학의 정시 전형 응시가 가능하며, 반대로 일반 대학 수시 합격 이후에도 전공대학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은 학위 수여 자격은 유사하지만 법적 기반과 제도

운영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입시생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선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법적 기반 및 제도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legal foundations and systems between junior colleges and vocational colleges

Category	Junior colleges	Vocational colleges
Legal basis	Higher Education Act	Lifelong Education Act (amended in 2007)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Regula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Degree conferral	Associate degree (2-3 years), Bachelor's degree (advanced major program)	Associate degree (recognized as equivalent to junior colleges)
Representative cases	Approximately 130 junior colleges nationwide	Jeonghwa Arts University, Baekseok Arts University, Kukje University of Arts (total of 3)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	Includes national scholarship support, administrative audits, enrollment regulations, policy participation	Excluded from some systems (limited scope of national scholarships and enrollment regulations)
Admission system	No multiple applications and no double enrollment principles applied	Multiple applications and double enrollment principles allowed
Characteristics	Higher education focused on vocational skills and professional training	Developed from higher technical schools and vocational courses, education focused on vocational skills for adults and youth

2. 실용음악과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적 특성

실용음악과는 1990년대 이후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과 함께 대학 교육 체제 안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 기존 음악대학이 클래식 중심의 학과 체제를 유지하던 것과 달리, 실용음악과는 대중음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컬 · 기악 · 작곡 · 사운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을 포함하는 학과로 개설되었다. 이정선(Lee, 2013)은 대학 실용음악 계열 학과의 개설이 단기간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특히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실용음악 교육이 학문적 탐구보다는 실기 중심, 현장 밀착형 교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실용음악과는 전통적인 학문 중심의 고등교육보다는 직업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제 제약과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실용음악과의 주요 개설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실용음

악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음악학과 내에 실용음악 전공을 병설하는 형태로 제도적 수용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설 형태는 실용음악과가 고등교육 전반에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대학 유형별로 교육과정 운영과 제도적 기반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또한 실용음악과는 입시 구조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전공 실기 위주의 선발 방식, 산업 현장 전문가 참여 평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문적 이수 요건 등은 다른 전공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실용음악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다 직업 지향적 동기와 현장 중심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조태선(Cho, 2023)은 실용음악과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특히 실용음악과가 다른 전공에 비해 직업교육적 요소가 강하고,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이 졸업 후 진로 선택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실용음악과의 특징은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입시 경쟁률로 이어졌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예술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132.5:1, 동아방송예술대학은 80.9:1로 극도로 높은 진입 장벽을 나타냈다(Uway, 2025). 반면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의 경우, 정화예술대학은 8.9:1(Jeonghwa Arts College, 2025), 백석예술대학은 24.7:1(Uway, 2025)로 나타나 유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 유형에 따라 학위의 효력,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 졸업 후 진로 지원 체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용음악과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적 특성은 단순한 학과 개설의 확대를 넘어, 대학의 유형별 법적·제도적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방식, 진로 연계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문대학과 전공대학 명칭 혼용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실용음악과 지원자들의 대학 선택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교육기관의 명칭은 단순한 표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수용자에게 해당 기관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신호(signaling)로 작용한다. 특히 입시와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명칭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에블과 후는 대학 명칭이 학생 선택 과정에서 신호로 작용하며, 이는 교육의 질이나 제도적 특성과 별개로 인식 형성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Eble & Hu,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대학교’와 같은 유사 명칭은 실제 제도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관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내포하며, 수험생의 대학 선택 과정에서 혼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명칭은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인식 형성과 선택 행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실용음악과 진학을 준비 중인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실용음악 입시학원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총 14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144부 모두 응답 내용이 성실하여 전체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경기 및 대구 지역의 실용음악 입시학원과 인문계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특정 지역과 교육 환경에 기반한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전공 분야, 실용음악 입시 준비 기간을 포함하며,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의 전문대학과 전공대학 명칭 인식 및 대학 선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노효련(Roh, 2012)과 윤수경 외(Yun et al.,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용음악 계열의 특성과 제도 인식 요소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총 18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3문항, 제도적 인식 5문항, 명칭 인식 및 혼동 인식 5문항, 정보 획득 경로 및 신뢰도 3문항, 대학 선택 요인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 제도 인식, 명칭 인식, 정보 획득 경로 문항은 선택형으로, 명칭에 대한 인식과 대학 선택 요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제도 인식 문항 중 국가장학금 적용, 정시 지원 가능성, 학위 효력에 관한 세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의 전문대학과 전공대학 명칭 인식 및 제도적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이 대학 선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2025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하나의 온라인 설문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동일 집단 내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형식을 적용하였다. 1차 사전 설문 응답 직후,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제도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 세션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 세션에서는 두 기관의 법적 기반, 학위 수여 체계, 국가장학금 적용 여부, 복수지원 및 정시 응시 가능 여부 등 제도적 차이와 더불어,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중도탈락률 추이(2015~2024년) 및 졸업자 규모와 취업률(2023년 기준) 등을 포함하였다. 해당 교육 세션은 객관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기관에 대한 평가나 선택을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응답자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일 설문 내 사후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전-사후 구성은 동일 변인을 반복 측정하여 제도 정보 제공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인식 및 판단 변화의 경향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되었다.

설문은 온라인 방식(Google Forms)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연구 목적과 참여 방법을 충분히 안내한 후 자발적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제도 인식, 명칭 인식, 정보 획득 경로는 빈도분석을 통해, 명칭에 대한 인식과 대학 선택 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도 인식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제도 인식과 진학 결정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명목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인 Cramer's V 를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예술계 고등교육기관 명칭 혼용에 대한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총 14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학년별로는 고2 6명(4.2%), 고3 75명(52.1%), 재수 이상 63명(43.7%)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보컬 114명(79.1%), 기악 20명(13.9%), 작곡/프로듀싱 8명(5.6%), 그 외 2명(1.4%)으로 나타났다. 입시 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 26명(18.1%), 6-12개월 35명(24.3%), 1-2년 51명(35.4%), 2년 이상 32명(22.2%)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44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Grade	11th grade	6	4.2
	12th grade	75	52.1
	Gap year or above	63	43.7
Major	Vocal	114	79.1
	Instrumental	20	13.9
	Composition and producing	8	5.6
	Others	2	1.4
Entrance exam preparation period	Less than 6 months	26	18.1
	6-12 months	35	24.3
	1-2 years	51	35.4
	More than 2 years	32	22.2

2. 제도 인식

제도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문대학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37명(25.7%), 「평생교육법」 33명(22.9%), 잘 모르겠다 74명(51.4%)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대학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21명(14.6%), 「평생교육법」 47명(32.6%), 잘 모르겠다 76명(52.8%)으로 나타났다. 전공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일 적용 여부는 그렇다 49명(34.0%), 아니다 19명(13.2%), 모르겠다 76명(52.8%), 전공대학 합격 후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4년제 일반 대학 정시 지원 가능 여부는 그렇다 73명(50.7%), 아니다 25명(17.4%), 모르겠다 46명(31.9%), 학위의 동등 효력은 그렇다 37명(25.7%), 아니다 40명(27.8%), 모르겠다 67명(46.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적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여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실용음악과 진학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입시 관련 정보의 주요 획득 경로가 학원 및 강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차이

에 대한 체계적 정보보다 실기 준비 중심의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이 학위 수여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만큼, 명칭만으로는 제도적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도 이러한 인식 공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르겠다’ 응답의 높은 비율은 개인의 인식 부족이 아니라, 입시 정보 제공 구조와 교육기관 명칭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 인식 문항 중 국가장학금 적용, 정시 지원 가능성, 학위 효력에 관한 세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 는 .70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Table 3> Knowledge of institutional systems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Legal basis of junior colleges	Higher education act	37	25.7
	Lifelong education act	33	22.9
	I don't know	74	51.4
Legal basis of vocational colleges	Higher education act	21	14.6
	Lifelong education act	47	32.6
	I don't know	76	52.8
National scholarship eligibility for vocational colleges	True	49	34.0
	False	19	13.2
	I don't know	76	52.8
Regular university application after vocational college admission	True	73	50.7
	False	25	17.4
	I don't know	46	31.9
Equivalence of associate degrees	True	37	25.7
	False	40	27.8
	I don't know	67	46.5

3. 명칭 인식 및 혼동

본 연구에서는 명칭 인식 및 혼동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들이 ‘예술대학교’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예술대학교’와 ‘○○예술전공대학’이라는 두 가지 명칭을 제시하였다. 이는 명칭에 ‘전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응답자들이 두 기관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응답자들이 명칭의 미세한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명칭 자체가 기관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명칭 변화에도 불구하고 혼동이 지속된다면, 보다 근본적인 정보 부족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명칭 인식 및 혼동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예술대학교’에 대한 인식은 4년제 대학 14명(9.7%), 전문대학 104명(72.3%), 전공대학 11명(7.6%), 모르겠다 15명(10.4%)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전공대학’에 대한 인식은 4년제 대학 5명(3.5%), 전문대학 24명(16.7%), 전공대학 91명(63.1%), 모르겠다 24명(16.7%)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예술대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예술전공대학’을 전공대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각각 20% 내외의 응답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명칭에 따른 인식 혼동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명칭으로 인한 실제 제도 차이 혼동 경험은 예 95명(66.0%), 아니오 49명(34.0%)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명칭으로 인해 제도적 차이를 혼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Perception and confusion of institutional names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Perception of ‘○○Arts University’	Four-year university	14	9.7
	Junior college	104	72.3
	Vocational college	11	7.6
	I don't know	15	10.4
Perception of ‘○○Arts Vocational College’	Four-year university	5	3.5
	Junior college	24	16.7
	Vocational college	91	63.1
	I don't know	24	16.7
Experience of confusion due to institutional names	Yes	95	66.0
	No	49	34.0

‘대학교’ 명칭에 따른 제도적 동일성 인식과 학교 명칭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Table 5>와 <Table 6>에 각각 제시하였다. ‘대학교’ 명칭이 붙으면 법적 관할 기관, 장학금 지원처, 학위 효력 등 제도적 이점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3.30점($SD = 0.97$)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명칭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의 평균은 3.84점($SD = 1.02$)으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서 중간값인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두 결과 모두 중립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명칭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3.84점)이 제도적 동일성 인식(3.30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들이 실제 제도적 차이와 무관하게 명칭 자체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5> Perception of institutional equivalence based on 'university' title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Belief in institutional equivalence based on 'university' title	Strongly disagree	6	4.2
	Disagree	21	14.6
	Neutral	54	37.5
	Agree	50	34.7
	Strongly agree	13	9.0
(1~5, Likert scale) $M = 3.30$ $SD = 0.97$			

<Table 6> Influence of institutional names on college choice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Influence of institutional names on college choice	Strongly disagree	4	2.8
	Disagree	13	9.0
	Neutral	25	17.3
	Agree	62	43.1
	Strongly agree	40	27.8
(1~5, Likert scale) $M = 3.84$ $SD = 1.02$			

또한 일반적 특성(학년, 전공, 입시 준비 기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는 '대학교' 명칭에 대한 제도적 동일성 인식과 명칭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학년, 전공, 입시 준비 기간과 무관하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명칭 인식과 혼동 문제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해당 집단이 유사한 정보 환경과 입시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입시 정보 획득 경로가 학원 및 강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정보 획득 경로 및 신뢰

정보 획득 경로 및 신뢰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입시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학원·강사 78명(54.2%), 인터넷/유튜브 27명(18.8%), 선배·지인 15명(10.4%), 학교 교사 14명(9.7%), 학교 홈페이지 10명(6.9%)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원과 강사를 통해 입시 정보를 주로 획득하고 있었다.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학원·강사 59명(41.0%), 학교 홈페이지 49명(34.0%), 선배·지인 21명(14.5%), 학교 교사 9명(6.3%), 인터넷/유튜브 6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정보 획득 경로로는 인터넷/유튜브가 18.8%로 2위였으나 신뢰도에서는 4.2%로 가장 낮았으며, 학교 홈페이지는 정보 획득 경로로는 6.9%에 불과했지만 신뢰도에서는 34.0%로 2위를 차지하여 공식 정보원에 대한 높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차이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자주 있다 17명(11.8%), 가끔 있다 39명(27.1%), 거의 없다 53명(36.8%), 전혀 없다 35명(24.3%)로 나타나, 응답자의 61.1%가 두 기관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Information sources and trust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Primary source of admission information	Private academy/instructor	78	54.2
	School teacher	14	9.7
	Internet/YouTube	27	18.8
	University website	10	6.9
	Senior students/acquaintances	15	10.4
Most trusted information source	Private academy/instructor	59	41.0
	School teacher	9	6.3
	Internet/YouTube	6	4.2
	University website	49	34.0
	Senior students/acquaintances	21	14.5
Exposure to information about institutional differences	Frequently	17	11.8
	Sometimes	39	27.1
	Rarely	53	36.8
	Never	35	24.3

5. 진학 결정 요인(사전 조사)

진학 결정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대학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시 경쟁률이 높은 대학 선호 82명(56.9%), 졸업 후 진로 26명(18.1%), 실기 중심 교육 17명(11.8%), 교수진 16명(11.1%), 장학금 3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입시 경쟁률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실질적인 교육 내용(실기 중심 교육, 교수진)이나 경제적 요인(장학금)보다 높은 입시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확인된 명칭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3.84점)과 연결되는 결과로, 응답자들이 학교의 실질적 특성보다 외형적 지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Table 8> Factors influencing college choice (preliminary survey)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Most important factor in college choice	Faculty	16	11.1
	Practice-oriented education	17	11.8
	Scholarships	3	2.1
	Admission competition rate	82	56.9
	Career prospects after graduation	26	18.1

6. 진학 결정 변화(사후 조사)

1차 사전 설문 응답을 마친 후 동일 설문 내에서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세션을 제시하였다. 이후 제도 인식 수준이 진학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조사에서는 ‘대학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사후 조사에서는 ‘제도적 차이를 알게 된 후 진학 결정 변화 가능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사후 조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제도적 장단점을 이해한 후 진학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3명(2.1%), 그렇지 않다 7명(4.9%), 보통이다 40명(27.8%), 그렇다 51명(35.4%), 매우 그렇다 43명(29.9%)으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문항으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평균 3.86점($SD = 0.97$)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65.3%(그렇다+매우 그렇다)가 제도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경우 진학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정보 제공이 대학 선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평균

3.86점은 앞서 측정된 명칭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3.84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적 정보가 명칭만큼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9> Changes in college decision (post-survey)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Potential influence of institutional knowledge on college decision	Strongly disagree	3	2.1
	Disagree	7	4.9
	Neutral	40	27.8
	Agree	51	35.4
	Strongly agree	43	29.9
(1~5, Likert scale) $M = 3.86$ $SD = 0.97$			

제도 인식 수준과 진학 결정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명목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ramer's V를 산출하였으며, 이 계수는 0~1의 값을 가진다.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knowledge of institutional systems and college decision factors

	Most important factor in college choice	Influence of institutional understanding on college decision
Legal basis of junior colleges	.215(.102)	.196(.198)
Legal basis of vocational colleges	.286(.003)	.206(.141)
National scholarship eligibility for vocational colleges	.188(.252)	.226(.066)
Regular university application after vocational college admission	.165(.446)	.234(.046)
Equivalence of associate degrees	.186(.267)	.208(.130)

제도 인식과 진학 결정 요인 간의 Cramer's V는 .165 ~ .286으로 나타나 일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제도 인식 수준이 진학 결정과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명칭 혼용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이해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두 기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66%가 명칭으로 인해 실제 제도 차이를 혼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학교’ 명칭에 대한 제도적 동일성 기대(평균 3.30점)와 명칭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평균 3.84점)이 중립 이상으로 나타나, 명칭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 선택 시 학교 명성(56.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실질적 교육 내용보다 외형적 요소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학 선택 과정에서 입시 경쟁률과 같은 외형적 지표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실용음악과 입시 맥락에서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 높은 선호도나 인지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률이 학교 명성 인식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제도적 차이에 대한 정보 제공 후 실시한 사후 조사에서는 65.3%의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 진학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명칭 혼용과 정보 부족이 합리적인 대학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상관분석 결과, 제도 인식과 진학 결정 요인 간에 유의한 연관성(Cramer's $V = .165 \sim .286$)이 확인되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진학 결정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예술대학교’와 같은 유사 명칭 사용은 진학 예정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이나 전공대학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정보 투명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특성을 입시 안내 자료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홈페이지, 입시 요강, 대입 정보 포털(어디가, 대입정보포털 등)에서 해당 기관이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하는지, 국가장학금 적용 범위, 복수지원 및 정시 응시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동시에 전공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유연성과 현장 밀착형 교육이라는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전공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력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다. 입학 시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생의 실력에 맞는 반을 편성하고,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방식은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학습자를 수용하는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에도 부합한다. 또한 산학 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현장 전문가가 멘토링 제도,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인턴십 및 현장 실습 의무화 등을 통해 졸업 후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다.

더불어 진로 지원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의 진로 목표에 맞춘 맞춤형 상담,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성인 학습자나 재직자를 고려한 야간·주말 과정, 온라인 병행 수업, 모듈형 교육과정 등을 도입하면 접근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공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정원 규제나 정책 참여에서도 전문대학과 차이가 있어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복지 향상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공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공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산학 협력, 실습 환경 개선,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성인 학습자 유입 촉진 프로그램, 재직자 대상 재교육 과정 지원 등을 확대하여, 전공대학이 평생교육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대학과 전공대학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상호 보완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점 교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두 기관이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예술계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 진학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예술계 전체 또는 다른 전공 분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전공(미술, 무용, 연극영화 등) 및 타 계열 진학 예정자를 포함하여 명칭 혼용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통해 명칭 인식과 진학 결정이 실제 학업 만족도, 진로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의 명칭 혼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보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대학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전공대학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 전략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두 기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예술계 고등교육 정책 수립과 입시 정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Cho, T. S. (2023). Reflections on the correlation between practical musicology curriculum and employment linka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10), 718-7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0.718>
- Cho, Y. H. (2023, July 12). *Explanation on the notation of 'junior college'*. Dhnews. Retrieved October, 31, 2025, from <https://dhnews.co.kr/news/view/1065578299660054>
- Eble, A., & Hu, F. (2022). Signals, information, and the value of college nam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7(2), 355-371. https://doi.org/10.1162/rest_a_01277
- Gauthier, T. (2020). A renewed examination of the stigma associated with community college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ommunity College*, 44(12), 870-884. <https://doi.org/10.1080/10668926.2020.1758835>
- Jeonghwa Arts College (2025). *2025 early admission results*. Retrieved September, 30, 2025, from https://ipsi.jb.ac.kr/?m1=page&menu_id=904
- Kim, E. K. (2016). Study on the differences of factors affecting college choice of confidence by majority fields -Focusing on the cases of a local college-.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56(0), 298-309.
- Kim, G. W., Yang, E. J., & Choi, J. S. (2016). Analysis of art, music and sports universities manpower supply and perception thereof.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4(1), 1-16.
- Kim, J. H. (2021). A study o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irection of practical music educatio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ajor students-. *Popular music contents society*, 5(2), 36-49. <https://doi.org/10.53755/PMCS.2021.5.2.36>
- Kim, Y. (2017). An analysis on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research on the lifelong education law.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9(4), 53-74. <https://doi.org/10.17317/tjle.29.4.201712.53>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2023, October 16). *Explanation on the notation of 'junior college'*. Dhnews. Retrieved July 12, 2023, from <https://dhnews.co.kr>

/news/view/1065578299660054

- Lee, I. H. (2024). Developing an educational curriculum to enhance applied music major competencies: A focus on K university. *Journal of Contents and Industry*, 6(3), 51-58.
- Lee, J. S. (2013). The establishment shapes of applied music department in korea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Popular Music*, 12, 99-136.
- Nam, C. H., & Lee, C. H. (2024). A comparative study on the music theory learning achievements of high school seniors applying for practical music entrance exams in Korea and China.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22(4), 197-210. <https://doi.org/10.23317/kaae.2024.22.4.011>
- Roh, H. R. (2012). Characteristics of highschool students about choosing a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7), 2964-2970. <https://doi.org/10.5762/KAIS.2012.13.7.2964>
- Uway (2025). *Power competition rate*. Retrieved from <https://info.uway.com/power/>
- Yun, S. K., Han, Y. K., Im, S. H., & Kim, H. Y. (2015).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college and major sele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2(2), 87-107. <https://doi.org/10.22804/jke.2015.42.2.004>